일본의 예절 문화

일본어일본학과 22008526 류태은

일본의 예의범절은?

일본의 예의범절은 [마음]과 [모습]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이란 상대방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며, [모습]이란 그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치관과 습관, 입장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서로 기분 좋게 교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원활한 교류를 하기 위한 행동 규범이기도 하다.

이처럼 일본은 예의와 그에 맞는 모습, 몸가짐을 중시하는 나라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를 중시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1. 철학이나 종교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다.

일본인들은 중국의 성인들이 제정한 엄격한 행동준칙을 몇 세기 대대로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과 국가를 위해 책임을 져야 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순종적이고 규범의 굴레에 익숙해졌다. 실제로 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특징을 ‘순종적’인 편이라고 많이들 말한다.

1. 아이에 대한 예의 교육의 중시

부모가 아이에게 사교 예절을 중시하도록 교육하는 동시에 학교에서도 각종 규칙과 제도를 정한다. 예를 들어 매일 자신들의 교실이나 학교 안을 청소할 것, 교사나 타인에 대해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할 것을 가르친다. 또, 많은 학교가 교복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아동이나 학생에게 통일성을 의식 시키는 등, 다양한 예절을 어렸을 적부터 가르친다.

1. 가까운 거리에서의 예의를 중시

일본인의 생활방식이나 인간관계에서는 통상 서로 예의를 중히 여긴다.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친구든 낯선 사람이든 각종 충돌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생활을 부드럽게 하는 법을 배운다. 특히 퍼스널 스페이스(パーソナルスペース)가 적은 공공 장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로서 전철에 타고 있을 때에 큰 소리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다른 승객이 불쾌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의 예의는 타인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어떠한 충돌이든 피하고 자신의 퍼스널 스페이스(パーソナルスペース)를 중요시 여긴다.

식사 예절

일본의 식사 예절 중 가장 기본으로 되는 것은 식사를 시작하고 끝낼 때 “잘먹겠습니다.(頂きます)”와 “잘먹었어요.(ご馳走様でした)”라고 인사하는 것이 관례이다. 소리를 내어 말해도 좋고, 공공장소나 조용한 장소라면 말하지 않고 두 손을 맞추고 마음 속으로 말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일본에서는 밥그릇을 들고 먹는 것이 올바른 예절이다. 한국이나 외국에서는 밥그릇을 들고 밥을 먹는 행동이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일본은 오히려 테이블에 그릇을 그대로 두고 얼굴을 음식 가까이 하여 먹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세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밥그릇을 들고 식사하는 것이 예의에 맞다.

젓가락과 관련된 예의

처음은 올바른 젓가락을 잡는 방법(한국과 동일)에서 젓가락질이 능숙해지면 젓가락을 예쁘게 잡는 방법도 연습한다고 한다.

또한 젓가락을 접시에 대거나 음식을 젓가락으로 찌르는 행동, 젓가락을 입에 물고 있는 행동 등등은 버릇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피해야 할 행동이다.

또한 일본의 식사 중 젓가락으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젓가락에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전달하는 행위(橋渡し)가 바로 그것이다.

일본에서는 죽은 사람의 유골을 젓가락에서 젓가락으로 옮기는 문화가 있는데, 식사 자리에서 반찬 등을 젓가락에서 젓가락으로 옮기는 것이 그 행위를 연상시키기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금기 사항이다.

공공장소에서의 예의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공공장소에서의 예의가 많지만 조금 다른 것들도 몇가지 있다.

대중교통 –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약좌석을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그런 노약자석을 비우고 젊은 사람들은 앉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조금 다르다. 일본은 오히려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신의 눈 앞에 노약자석을 포함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앉지 않는 것은 역으로 주위에 폐를 끼치는 행동 일 수 있다. 노약자석은 결코 “앉으면 안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앉아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앉거나, 혹은 가까이의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다.

열차 – 일본의 열차 중 대표적인 신칸센 열차를 예로 들어보면, 열차는 보통 좌석마다 좀 더 편안한 이동을 위해 등받이를 뒤로 넘어뜨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뒷사람에게 미리 말을 하는 것이 예의 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말을 거는 것은 결코 의무가 아니다. 그저 뒷사람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면서 천천히 뒤로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손한 자세이다. 또한 뒷사람이 일에 집중하거나 숙면 중일 경우 말을 걸어 깨우거나 집중을 방해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으로 무례한 행동일 수 있다. 갑자기 뒤로 확 넘어가는 건 너무 무례한 짓이고, 자칫 잘못하면 음료수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등받이를 최대한으로 쓰러뜨리는 것도 폐가 될 수 있기에 각도를 조절해야 한다.

음식점 – 한국에서는 흔히들 SNS에 자신이 먹은 음식 사진을 예쁘게 찍어 여러 장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추억을 남기고 싶은 마음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분은 잘 알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음식 촬영 등이 자칫 가게의 분위기를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가게나 음식점에 왔다면 적어도 목적이 사진 찍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셔터 소리를 울리며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분명 불편하고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점원에게도 폐가 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렇기에 요즘은 촬영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가게도 있다고 한다. 일본에 관광, 혹은 여행으로 방문할 경우 가게 매뉴얼을 한 번씩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거리 – 한국에서는 흔히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나 전단지를 거리에 그냥 버리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일본에선 상당히 무례한 짓이며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돌아다니느 사람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담배는 지정된 흡연구역을 무조건 이용하고 일본은 자판기가 많아 그 주위에 쓰레기통도 있어 쓰레기도 항상 쓰레기통에 버려야한다. 실제로 일본을 여행가면 거리가 매우 깨끗하고 쓰레기나 담배꽁초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모노 경찰

일본은 예의를 중시하는 만큼 몸가짐과 옷 매무새도 단정하고 깔끔한 편이다. 그 중 평상복이 아닌 일본의 젊은 여성들 중 기모노를 입고 외출하는 여성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여성들에게 듣고 보도 못한 나이든 여성이 다가와 “기모노의 옷 매무새가 되어 있지않다.”라는 이유 등으로 지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장실로 데려가 무조건 옷 매무새를 바르게 고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들 한다. 이들을 일본에서는 기모노 경찰이라고 부른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옷 매무새를 정돈 해주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무례하고 강압적인 태도의 기모노 경찰에게 붙잡힌 일로 트라우마가 생겨 기모노를 입고 싶어 하지 않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의를 지켜 기모노를 칭찬하며 친절하게 알려주는 편이 좋다.